

만일 <헌법>이 말을 한다면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남한단독정부수립이라는 민족 사적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1948년 7월 17일에 독자적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다 헌법을 지키고 헌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헌절을 10·3개천절, 3·1절, 8·15 광복절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국회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 독재체제하에서도 ‘헌법정신’, ‘헌법준수’는 앵무새처럼 반복되었고 더구나 불의한 독재자들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날에는 오른손을 들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도 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어이없는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비극의 증언자들입니다.

우리 헌법사는 그 자체가 현대사이며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일 <헌법>이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할 것입니다. 원로 인권변호사가 우리 사제들에게 들려준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오른손을 들고 온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들아, 국회의원들아, 대법원장들아, 그리고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과 법대로 판결한다는 법관들과 법을 집행한다는 검찰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들은 법의 기초인 정의를 짓밟은 불의한 자들이야. 이승만아, 너는 1954년 11월 27일에 이른바 사사오입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강간한 셈이야. 너는 아마 이일을 잊었겠지. 나쁜 짓 한 자들은 제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게 마련이거든.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다. 너를 도와 이 범죄에 가담한 졸개 국회의원들아, 저승에서라도 누우쳐라.

그리고 박정희야, 네 이름만 들어도 나는 너무 슬프단다. 너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이었는데 그 충갈, 군화발로 내 목골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무참하게 짓밟았어. 그런데도 너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 신의와 충성을 다짐한 군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나는 온 힘을 다해 기력을 회복하려 했는데 너는 계속 위수령, 계엄령, 3선개헌, 국회해산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만 저질렀구나. 네게 당한 수모를 내가 어떻게 이 짧은 시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간에 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유신독재헌법을 법무부와 검찰총장들인 김기춘, 서일교, 이진개와 한태연, 갈봉근, 이 씨 등 세 교수가 비밀작업 끝에 만들었다지. 그래서 법조인들은 이를 ‘한같이 헌법’이라고도 불렀다.

하기야 법을 만든다는 자들은 법을 좀 배운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법을 좀 배웠다면, 범죄에 공모한 교수, 법관, 검찰 등 법조인들은 결국 독재정권하에서 몸을 팔고 산 인신매매업자와 다를없었지. 더구나 유신헌법은 프랑스의 드골을 참조했다고 왜곡하여 ‘한국식 민주주의’, ‘드골식 헌법’이라고 선전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기도 했었는데 드골은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다. 드골은 프랑스의 해방을 위하여 나치독일에 맞서 끝까지 싸웠던 신의의 군인이었다. 그리고 초야에 묻혀 지내다가 그야말로 국민의 부름을 받고 정치일선에 나섰던 인물이야. 그래서 드골은 제발 한국에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내게 호소도 했다.

법이란 거룩하다고 하지 않느냐? 법은 바로 하늘의 뜻을 반영하고 양심을 들어내고 민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같이 때문이지. 그런데 총칼로 위협하고, 밤중에 불 끄고 창고 같은 방으로 숨어 다니며 날치기로 만든 것을 과연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법을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법관들도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자가 아니겠느냐? 법과 질서, 정의를 외치는 법조인들아, 제헌절을 맞이하여 진지하게 함께 깊이 반성하자. 오늘은 이만하고 밀린 얘기는 내년에 또 하마!”

헌법은 상식과 정의에 기초한 우리 국민 모두의 힘입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청소년 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외치며 헌법 1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삼 헌법의 귀중한 가치와 제헌절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깁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찰에 앞서 국민이 바로 헌법기관의 모체임을 이 제헌절에 다시 확인하며 민주주의가 옹기종기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